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1년 겨울 제67권 4호



성탄을 맞아, 지구촌 난민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믿음의 씨앗, 성경

권서 백흥준이 지게 끈으로 꼬아
몰래 들여온 쪽복음을 읽으며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1 겨울 제67권 4호

02 포토에세이

진정한 평화를 전합니다

04 2021 성서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지구촌 난민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전해주세요!

10 2021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57개 나라에 413,441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12 나의 삶을 바꾼 말씀

가장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4 성서교회 운동을 위한 기도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16 새로운 해설 성경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발간하면서

18 새로운 번역 성경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신약성서의 번역 특징을 중심으로-

21 후원 이야기

24 대한성서교회 소식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재단사무국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자료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진정한 평화를 전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케냐에서는
주요 선거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 사이에
분열, 증오, 악의적인 행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폭력과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화의 메신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 있기에
지역 목회자들에게는 성경 한 권이 간절합니다.

성경을 받은 여러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성경은 마사이 지역 목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케냐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 성경을 받은 케냐 지역 교회 목회자



권익현 사장

“코로나 상황 속에도
국내외 성서사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내외 성서사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공회에서는 다매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번역하여 금년 11월 말에 출간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새한글성경』번역은 2011년 12월부터 ‘성경번역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1년 동안 번역 원칙을 연구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의 40대 젊은 성서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약 9년여 만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교회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강단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 번역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330,830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262,276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10,853,575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 13,255,725부를 포함하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총 2천 4백 11만여 부가 보급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 11월에는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발간하여,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100개 나라에 141개 언어로 지난해와 비슷한 3,233,00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8천 7백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자매 성서공회들이 필요로 하는 성서 제작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파악하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및 제본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원금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7개 회원 성서공회에 413,441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해외 성서 무료 기증 사업을 위한 헌금 15억 3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4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여 앞으로 모금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은 금년 10월 말 기준, 전체적으로 약 80%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늦어도 2023년 말 전으로는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위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원칙 연구위원회”의 조직은 16개 교단에 위원 파송을 요청하여 현재 14개 교단에서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연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개정 원칙”을 마련할 것이며, 본 공회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6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1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330,830부의
성경 보급



해외성서 보급

100개 나라에 141개
언어로 3,233,00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57개 성서공회에
413,441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약 6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47억 4천여만 원

지구촌 난민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전해주세요!



지구 반대편, 마음 속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잘 곳도, 마음을 나눌 이웃과 고향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분쟁들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종교 간의 싸움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인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려 했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난입니다. 매일의 끼니와 잠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삶은 이어집니다. 불안정 그 자체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난민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듭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삶의 의지가 됩니다. 난민들이 머무는 지역의 성서공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난민들을 향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를 피해서 고국을 떠난 기독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중동에는 다양한 박해가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 받고 차별을 당하는 일부터, 집과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성경이 불태워지는 극단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바소 총무(레바논성서교회)

많은 성서교회들은 내전을 경험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의 올바른 대화방법도 알려줍니다. 상처 치유 프로그램은 도시가 파괴되고 가족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본 이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난민 텐트에 모여 옴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곳에서 배운 말하기를 남편과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에서 배운 많은 것들은 저를 진정시키고 위안을 줍니다.”

-무나(요르단/상처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 상처 치유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 모습

또 태어나자마자 위험에 노출되고 교육의 기회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교실을 운영해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글을 배울 뿐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며 소속감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 어린이 문자교실 활동 모습

무엇보다 각 성서공회들은 난민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과, 매일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장 높으신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란에 있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매년,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나히드 세페리 총무(이란 디아스포라성서공회)

“기독교인의 삶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제 안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 멜리타(카타르)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직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난민 여성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계실 것입니다.”

-아밀(카타르)

“성경을 읽으면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희망을 줍니다. 성경은 걱정, 두려움, 사랑, 희망과 같이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삶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외국인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니타(카타르)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였고,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연일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었고, 조바심과 분주함이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
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자연 재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롬 8:39). 지난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따뜻한 기도와 후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웃과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이들에게, 모든 것 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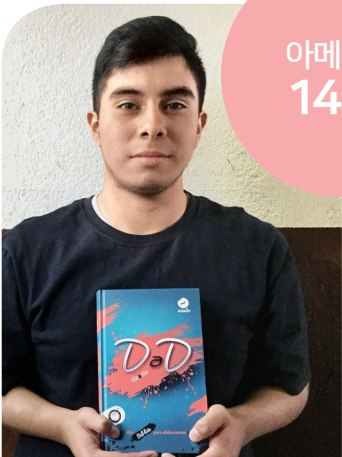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난민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57개 나라에 413,441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1. 10. 31 기준)
- 붉은 글씨 - 코로나19 해외 성경 후원 캠페인 성경이 발송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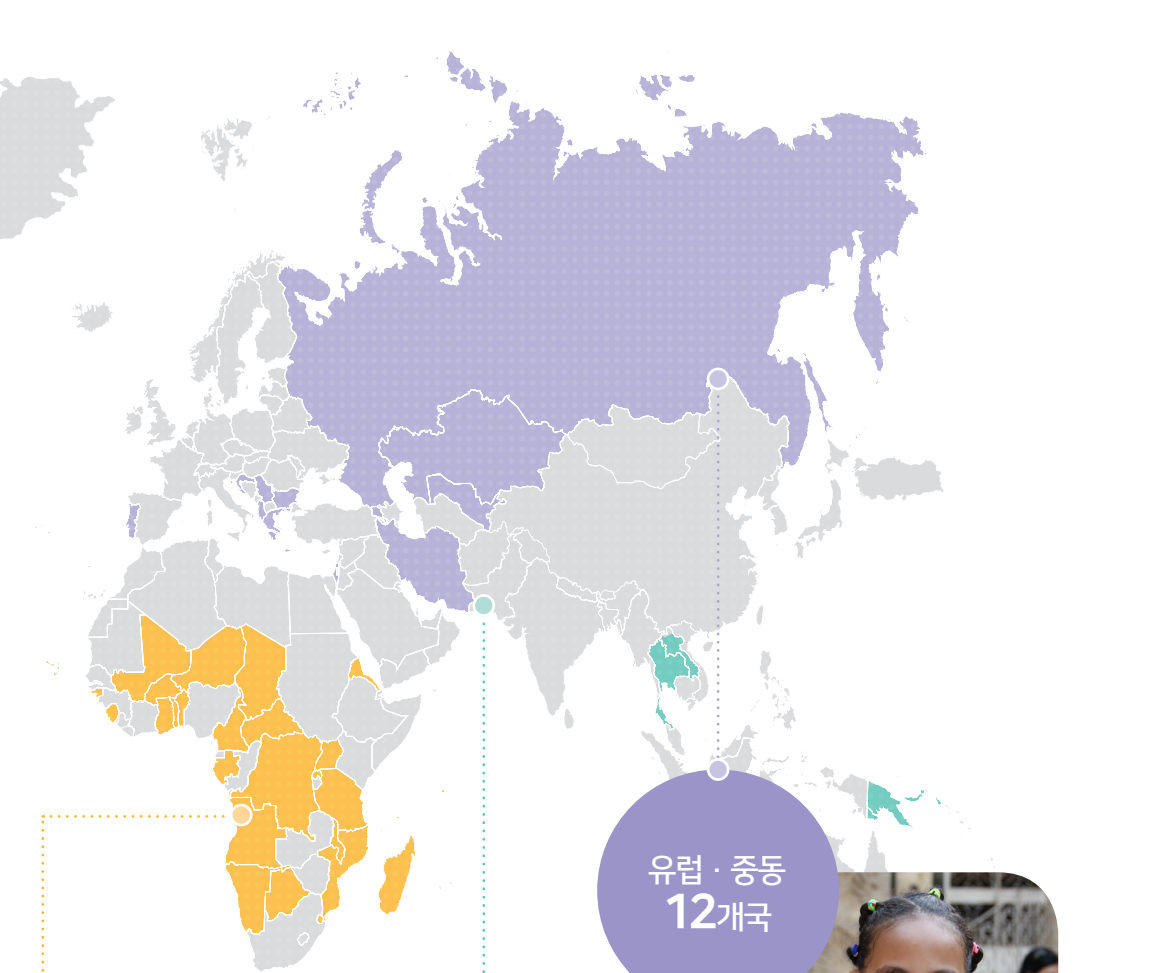
아메리카
14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이티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보베르데,
탄자니아, 토고, 감비아, 기니, 니제르, 모잠비크,
세이셸, 차드, 카메룬,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유럽 · 중동
12개국



그리스, 러시아, 북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포르투갈, 세르비아

아시아 태평양
3개국



라오스, 태국,
파푸아뉴기니

가장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필요

아프리카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니제르성서공회는 문자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니제르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문맹률은 71.3%입니다. 농촌 지방에서는 92%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면서 얻게 되는 사소하지만 새로운 지식들은 이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올해는 건기가 와도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성서공회의 문자교실 덕분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여 농사짓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 결과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마테우 롬포



“문자교실을 통해 가족들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잘 돌보기 시작하자 생산량이 늘었고, 그로 인해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판리에바 예르포바



“시장은 일주일에 한번 먼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글을 배운 사람들이 시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메모하고 구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욱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오옴보(문자교실 교사)



▲ 성경을 읽고 있는 니제르 사람들

영적 성장

문자교실을 통해 글을 배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새신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열심히 글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단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교회에 나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우테이니 오우치르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에마 롬포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오우코우아포우아노우(Oukouafouanou)에 있는 이사 오우마로우 목사(Issa Oumarou)와 몇몇 교회들은 문자교실을 통해 이 지역의 영적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가장 빈곤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문자교실에 참여한 이들이 훈련을 마치면, 저희는 그들 중 일부를 신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도와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니제르의 종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정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자교실을 수료한 일부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우마로우 목사



아시아 지역을 위한 기도

▲ 〈한국어-러시아어 대조 신약〉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

① 베트남

베트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성서공회가 젊은 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언어들로 출판되는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② 우즈베키스탄

성경 말씀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서공회 모든 직원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③ 파키스탄

파키스탄성서공회가 성경 번역 사역과 문자교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 성경이 출판되어 교회와 주일학교, 기독교 병원을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파키스탄과 정부가 안정화되어 이 나라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④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민자 사역에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많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가 성경을 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성서공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급되는 <한국어-러시아어 대조 신약>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고려인들과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발간하면서

박동현(대한성서공회 상임번역자문)



누가복음 2:28-32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누가복음 2:21-40 단락 해설 중

2:21-40

… 시므온에게는 그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약속의 성취와도 같다. 메시아가 주실 구원, 곧 하나님의 평화가 이 아기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활동은 예언자의 약속에 걸맞게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빛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빛이다. …

den Kreuz durch Pilatus. Sie wird nicht anders
zählt als diejenige des Johannes, zudem finden
sich die Umstände der Geburt und Marias Sorge
für ihr Kind Erwähnung, was beides zum Zeichen
wird. Spannungen deuten sich an: die Unver-
heiratete und doch der *Erstgeborene*; die *Futter-
krippe* und doch der Herr. – Die *Hirten* passen zu
Bethlehem und *David*. Nicht Verächtliches, sondern
heimnisvolles schwingt mit: Die *Nachtwachen*
weisen auf das kommende Licht. Die Erscheinung
des Engel (9, vgl. auch am Ende des Evangeliums,
24) bestimmt die Szene. Die Verkündigung betont

den der mit *allen* angesprochenen Leserinnen und
Lesern (18). Marias meditative Reaktion (19.51) ist
für sie vorbildlich, der tiefste Grund der Preisung
ist die erwiesene Verlässlichkeit von Gottes Wort.

Lukas 2,21–40

21 Und als acht Tage vorüber waren und er be-
schnitten werden sollte, da wurde ihm der Name
Jesus gegeben, der von dem Engel genannt worden
war, bevor er im Mutterleib empfangen wurde.

22 Und als für sie die Tage der Reinigung, die
das Gesetz des Mose vorschreibt, vorüber waren,

Stellen
21 Bekehrung in App 15;
Gal 4,4
32 Licht für Israel in App 26,17–
23; Röm 11,25–36
49 Beziehung von Vater und Sohn
in Lk 1,32.35; 3,22; 9,35; 22,70
Essay
David 4,11 bei 1Sam 16,1–13
Maria 5–19.34 bei Joh 19,25–30
Sohn/Sohn Gottes 7 bei
Gen 18,1–15
Engel 9–15.21 bei Offb 2,1–7
retten 11 bei Tit 3,1–4
Gesalbter 11.26 bei
1Sam 8,15–10,16
Herr 11 bei Joh 2,9–11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본문에 해설을 붙인
것으로, 해설은 『취리히성경해설집』(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 총회, 2010년 발간)의 대부
분을 한국 교회와 사회의 형편에 알맞게 편역
한 것입니다.

『취리히성경해설집』은 취리히 개혁교회가
발간한 안내서로서, 1524–1531년에 스위스
독일어로 번역된 『취리히성경』의 2007년 개
정판을 개인과 교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
필한 것입니다. 이 해설집 집필자들은 대부분
스위스 개혁교회 학자들이고 그 가운데는 목
회 현장이나 교회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
들도 있습니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21세기 초까지 놀랍도록 발전해 온 성서학의
열매를 일반 독자들도 맛볼 수 있도록 성서학
의 최근 경향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접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내용
도 거침없이 소개합니다. 성경의 각 책, 각 본
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러 본
문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룹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와 각 책

의 흐름과 짜임새에 비추어 각 부분이 지니는
뜻을 알려줍니다.

이 해설에서는 친구약 각 책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설 첫머리에 도표를 제
공합니다. 개별 단락 해설에서는 먼저 개역개
정판 본문을 제시하고 뒤이어 해설문을 넣었
습니다. 부록에는 신학 용어 해설 340여 항
목, 도량형 및 화폐 단위 설명, 컬러 지도 등 여
러 참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때로는 새롭고 낯선 내용을 소개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해설과 함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신앙과 경건의 폭이 넓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문적인 내용도 심도 있
게 제공함으로써 설교 준비와 연구에도 도움
을 주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취리히
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한국의 그
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 또 한국 교회 전체
와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신약성서의 번역 특징을 중심으로-

김창락(『새한글성경』 신약 책임번역자)



흔히 정치를 빗대어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언어는 생명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라는 것 또한 시대를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쓰이지 않는 낱말들은 폐어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낱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언어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 사회적인 위치, 직업 등에 따라서 그 언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아무리 완벽한 번역이라고 해도 그것이 영원불변한 번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어의 변화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매체의 변화도 이번 『새한글성경』 번역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2021년에

완역된 독일의 <바시스비벨>은 이런 언어와 매체의 변화를 성경 번역에 반영한 좋은 보기입니다. 휴대폰과 같이 작은 디지털 기기로 보기에 적절하게끔, 산문도 시처럼 행을 바꾸어 번역한 아주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한글성경』의 주요 번역 원칙을, 디지털 세대에 맞게 문장을 짧게 끊고 가능하면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로 번역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서두는 이를 반영하여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인사말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고린도전서 1:1-3

1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

람입니다. 나와 형제 소스데네가 2 코린
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 3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대화체도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대화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며, 한국어 어법에 맞
는 높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
는 말씀 중에서도 대중에게 하시는 말씀은 격
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열두 제자와 같이 친밀
한 사이에 하시는 말씀은 해요체와 친밀어를,
적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오체를 사용하
였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예수님 → 대중]

마태복음 1:17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
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 제자]

마태복음 10:8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죽은 사람
들은 일으켜 살려 주세요. 심한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귀

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
냥 주세요.

[예수님 → 적대자]

마태복음 12:34

독사의 자식들!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
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
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
하기 때문이요.

서신서의 경우에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침꼴을 달리하였
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인 로마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으나, 디
모데전후서, 디도서와 같이 바울과 친밀한 사
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친밀감을 살리면서도 목
회자인 상대방을 존중하는 하게체를 사용하
였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로마서 1:1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
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
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
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1-2

1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

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 2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를 쉽게 고친 부분도 많습니다. 한자를 모르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어 대신, 보다 쉬운 한자어나 순우리말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속량’ 대신 ‘풀어 주심’으로, ‘유월절’ 대신 ‘넘는명절’으로 번역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숫자 표기도 어색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태복음 13:8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20:15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고유명사 번역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말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음역을 존중하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말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리스어 원어에서 지명이 ‘-아’로 끝나는 점도 고려하여,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그 뜻을 살려 ‘카이사레아’로, 지방 이름인 ‘갈릴리’도 ‘갈릴래아’로 번역하였습니다.

가이사라 → 카이사레아

갈릴리 → 갈릴래아

마게도냐 → 마케도니아

수리아 → 시리아

애굽 → 이집트

우리 삶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귀한 성경 말씀이 이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을 통해서 디지털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읽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통로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Support | 후원 이야기



▲ 성경 전달(왼쪽부터 본 공회 권의현 사장, 서울광염교회 박현국 장로)

생명이 되는 성경

서울광염교회

- 〈말라가시어 성경〉 10,000부 / 〈치체와어 성경〉 6,462부 / 〈스와힐리어 성경〉 24,850부 기증

2021년 9월 9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에 〈말라가시어 성경〉 10,000부, 말라위에 〈치체와어 성경〉 6,462부,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24,85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금년 6월부터 서울광염교회는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본 공회로 성경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8개의 나라에 61,487부의 성경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이번에 우리가 제작 반포하는 성경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서울광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성경 기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는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탄자니아는 최근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성경은 어려운 경제 환경과 이슬람 세력의 위협 속에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앙을 놓지 않을 희망의 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증하는 성경 앞 정선자 목사, 정선주 집사, 박지혜 양

한 나라를 품는 마음으로

정선주 집사

- <스와티어 성경>외 13,600부 / <키콩고어 성경>외 7,900부 기증

2021년 9월 23일, 정선주 집사(부산 호산 나교회)의 후원으로 에스와티니에 <스와티어 성경>을 포함한 성경 13,600부, 앙골라에 <키콩고어 성경>, <킬갈라어 성경>을 비롯한 성경 7,9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본 공회 권익현 사장은 “성경 제작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에스와티니에 정선주 집사님이 성경을 후원해 주시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와티니의 어려움을 큰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선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내는 것을 보니 마음에 감동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

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대와 감회를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인 정선주 집사는 2013년부터 해외 성경보내기에 참여한 이후로 특별히 에스와티니의 성경 보급과 어린이 선교센터 건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후원을 통해 에스와티니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으며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위로받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전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목회자들조차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앙골라에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이번에 후원된 성경을 통해 앙골라 땅에 성서 사역이 지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 성경 전달(왼쪽부터 본 공회 권의현 사장, 김호용 상임이사, 강영애 권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을 기대하며 성경을 보냅니다

김호용 상임이사, 강영애 권사

- 〈트위아쿠아렘 성경〉외 19,848부 / 〈스페인어 성경〉 4,032부 / 〈마케도니아어 성경〉 2,430부 기증

2021년 10월 13일, 김호용 상임이사(대한 성서공회)와 강영애 권사의 후원으로 가나에 〈트위아쿠아렘 성경〉10,848부, 〈에웨어 성경〉 9,000부, 도미니카공화국에 〈스페인어 성경〉 4,032부, 북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어 성경〉 2,43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김호용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서공회 직원들이 정성과 물질, 신앙, 노력, 경험, 기술을 바쳐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세 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보내는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주어질 것인데, 천하보다 귀중한 단 한 명이라도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업이 지속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감사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중남미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유럽의 북마케도니아는 위치한 대륙은 다르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빈곤의 문제라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번에 후원된 성경은 각국의 다양한 계층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달되는 성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www.bskorea.or.kr) 접속

성경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마이페이지 - 이름, 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 받기),

인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 후 '로그인' 클릭 



좌측 메뉴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완료

(개인정보를 저장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 재접속 후 메뉴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클릭 후 출력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80-374-3061 (수신자 부담)

꼭 읽어주세요!

-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오프라인으로 기발급 받으신 경우 온라인으로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는 '종교단체 기부금(코드41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12월 12일(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믿음의 씨앗, 성경

험한 길을 헤쳐 한 무리 사람들이 향한 곳은 조선의 끝, 압록강.
이들을 기다린 백인 선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세례가 금지된 조선에서 베풀어진 '요단강 세례'였습니다.

권서 백홍준이 지게 끈으로 꼬아 몰래 들여온 쪽복음을 읽으며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재)대한성서공회